

내달 4일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 돌아온다

11월까지 매일 첫째 주 토요일 운영 올해 슬로건 '견자잉'...체험형 강화 개막일 탄소중립 주제 시민 퍼포먼스

지난해 광주 도심 도로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게 한 동구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29일 동구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일 첫째 주 토요일에 금남로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한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전일빌딩245부터 금남로 공원까지 약 400m 구간의 왕복 5차선 도로를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연간 방문객은 약 19만명,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인증에는 3천여명이 함께했다.

차량의 통행이 잠시 멈춘 공간에는 보행자의 발걸음이 들어서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 슬로건은 '견자잉(ing)'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행사 공간은 ▲쉬어잉 존 (도심 속 힐링 공간) ▲즐어잉 존 (탄소중립 실천 체험 공간) ▲놀어잉 존 (시민 자율공간) 등 3개 테마로 구성된다.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한 참여 보상 체계도 확대됐다. 행사 당일 대중교통 이용 인증 사진을 제시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온 시민이나 1만보 걷기를 달성한 방문객에게는 '대자보 여권'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후 지속 참여 시 회차별로 은누리상풍편 5천원을 지급하며 5월부터는 행사 당일뿐만 아니라 전일의 실천 인증도 인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다 참여자에게는 증장축제 개막식 초청과 동명커피산책 카페 투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야·취다장터와 1인기업홍보공간, 대학생동아리부스도 마련된다.

또 읽지 않는 책을 가져오면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 '한책바꿈소'도 운영되며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동구는 '충장 라온페스타'와 연계한 지하상가 영수증 이벤트를 비롯해 '충장 K-스타 챌린지', '동구랑페이 이벤트' 등을 통해 행사 방문객의 발걸음이 인근 상권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개막일인 다음 달 4일에는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매년과 탄소를 상징하는 회색 페버스를 시민들이 함께 밝은 색으로 채색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재탄생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탄소중립의 의미를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사"라며 "걷고 쉬며 즐기는 경험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남로 일대 차량이 통제된다. 동구는 시내버스 우회 노선 안내와 교통안내 요원 배치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인재영기자



맨발 산책로 금속탐지기로 안전점검
지난 27일 오후 광주 남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효천근린공원 맨발 산책로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산책로 내 금속성 이물질 점검·제거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맨발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철저히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남구 제공>

서구, '내 혈관 내가 지킨다' 운영

만성질환자 대상 체조·영양교실

광주 서구는 29일 "다음 달부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와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내 혈관 내가 지킨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체조·영양교실로 구성돼,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주민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며 스스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마련됐다.

'고당타과튼튼체조교실'은 6월까지 주 2회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전문가 지도 아래 유산소 운동과 소근육 근력운동을 병행하며 기초 체력을 길러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질환 완전정복 힐링 영양교실'은 5월까지 목요일마다 열리며 맞춤형 영양 교육과 요리 실습을 통해 저염·저당 식습관, 식재료 선택법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식단관리방법을 익힐 수 있다. 센터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건강

검사와 건강 상담도 진행해 개인별 상태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주민으로 건강 검진 결과서나 처방전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체조교실 48명, 영양교실 1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접수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2-350-4173)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변화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북구,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2030년까지 자격 유지 확보

553억 투입 86개 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사회참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과 정책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인증은 WHO가 제시한 8개 영역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4년 첫 인증 이후 북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WHO에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오는 2030년까지 고령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북구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 553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찬용기자

남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 '박차'

광주 남구가 집에서 치료를 받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 관할 지역에서는 해당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환자의 가정에는 전담 공무원, 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해 맞춤형 운동 서비스, 청소·세탁 등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형우기자

광산구, '맞춤형 모자보건' 밀착 지원

건강관리·대사이상 검사비 등

광주 광산구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모자보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사전 건강관리, 영구적 불임 예방 난자·정자 냉동 시술,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해 가임력 보존을 돕는다.

임신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제공하며, 청소년 산모와 고위험 임신부에게는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해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

한다.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062-960-8756, 87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육근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